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인식 : Q 방법론 적용

오승은, 이혜진*, 이주영
서울여자간호대학교

Nurses' Image perceived by College Nursing Students : Q-Methodological

Seung Eun Oh, Lee Hye-Jin*, Joo Young Lee
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요 약 본 논문은 Q 방법론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 이미지 유형과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여 효율적인 간호교육과 임상교육의 관리를 도모하고자 시도 되었다. 조사기간은 2017년 5월 15일부터 2017년 5월 24일까지 수행되었으며, Q 모집단 구성을 위한 자료수집은 심층면담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간호대학생을 편의표집하여 개방형 질문서 작성 및 심층면담을 통해 추출된 진술문 94개와 문헌고찰 후 도출된 진술문 64개를 토대로 총 158개의 진술문을 확보하였다. Q 표본의 선정을 위하여 Q 모집단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범주화하였다. 이를 통해 나온 범주는 자질 및 역할, 사회적 인식, 전문성, 독자성, 근무여건 등 총 5개 범주였다. 선택된 진술문은 전문가의 검토와 수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35개의 Q 표본을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일개 간호대학 재학생 46명이 35개의 Q 진술문을 분류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PC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결과 『유형 I-1: 직무소진 염려형』, 『유형 I-2: 전문직 자부심형』, 『유형 II-1: 처우 불만족형』, 『유형 II-2: 조직문화 불만족형』의 2개 요인의 4개 유형이 도출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간호교육과 임상교육의 이미지 제고 전략에 접근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nursing image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nurses perceiv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by applying the Q methodology and to manage effective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educa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May 15, 2017 to May 24, 2017, and the data collection for the Q population composition was based on in-depth interviews and literature review. First, nursing college students were searched for convenience and 158 statements were obtained based on open questionnaires and 64 statements extracted from in-depth interviews and after a literature review. To select the Q sample, Q population was categorized by taking several repeated readings. Five categories were developed from these processes: quality and role, social awareness, professionalism, uniqueness, and working conditions. The selected statements were reviewed and revised by experts and 35 Q samples were finally selected. Based on this, 46 students in one nursing college classified 35 Q statements, and analyzed data using PC QUANL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2) Type I-1: Job related anxiety, Type I-2: cold and professional, Type II-1: Complaint of treatment and Type II-2: Profession - Unacceptable. These results are expected to provide useful data for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nurses' images and provide data enabling development of image improvement strategies of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education.

Keywords : Subjectivity, Q methodology, College Nursing Student, Nurse, Nurses' image

본 논문은 2016년도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snjc2016-020)

*Corresponding Author : Lee Hye-Jin(Seoul Women's College of Nursing)

Tel: +82-10-9096-4200 email: diagnosis99@naver.com

Received April 20, 2018

Revised June 15, 2018

Accepted July 6, 2018

Published July 31, 2018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1세기 간호실무 영역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의료환경 체계에서 더욱 확대되고 전문화되고 있다. 다양한 간호 현장에서 인식되는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는 간호의 전문직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1].

일반적으로 이미지란 특정 대상이나 사물에 대한 주관적 인상이나 느낌을 의미하며, 타인의 태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다[2]. 이러한 이미지는 개개인이 체험 또는 경험을 통해 인식되고, 특정한 이미지로 각인이 된다[3].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사에 대한 신념 및 간호직에 대한 자아상으로 제시된다. 간호사 이미지는 대중매체, 영화, 소설, 문헌 등을 통해 다양한 언어로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로 표현되어왔다. 과거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사는 수동적, 순종적이고, 업무를 돕는 보조적인 인식이 크고[4], 백의의 천사, 여성의 직업, 희생과 봉사와 같은 전통적인 이미지[5]가 주류를 이루었으며 시대적 흐름에 따라 점차 숭고하고 도덕적인 여성의 이미지[6]로 표현되었으며 현실점에서의 간호사 이미지는 책임감과 자율성[7], 학문적 발전과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연구자, 교육자, 보건정책결정자[8] 등 국민의 건강관리자로서의 긍정적 이미지로 전환되고 있다.

간호사의 긍정적인 자아상은 양질의 환자간호와 환자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는데 기초가 되고 있다.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는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이고 예비간호사로써 간호사의 정체성 및 전문직관을 형성하는데도 중요하다[9]. 예비 간호사로써 간호대학생이 느끼는 간호사 이미지를 통해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지점서의 역할뿐 아니라 양질의 간호 인력으로서의 성장의 기회가 된다[10]. 그러나 부정적인 간호사 이미지는 간호사의 자존감 저하로 업무 사기 저하, 간호 전문직관의 정체성 상실을 야기한다[9]. 이는 업무 동기부여의 감소, 고용불안을 초래하게 되고 병상에 있는 환자 간호와 직결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간호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간호의 질과 고객만족도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9].

간호사의 직업관은 전인간호 실천의 핵심으로 간호에 대한 가치관과 연결되고, 간호사가 지닌 간호관에 따라

실제 간호가 이루어지고 실제 간호에 의해 간호사의 전체 이미지가 형성된다고 하였다[11].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탐색하는 것은 간호를 독자적, 전문적 이미지로 변화시키고 간호의 질을 높이며 안정된 직업의 이미지로 대두되는 초석이 된다[10]. 미래에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 이미지를 확인하는 것은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고, 간호의 질을 높이고 환자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9,12]. 미래의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간호사 이미지의 방향성을 파악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

기존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 이미지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 이미지의 내용분석[13], 간호사 이미지와 간호전문직관[14],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비교[15], 간호사 이미지와 전문직 사회화와의 관계[6], 임상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12],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16]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인의 경험과 지각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추상성이 높은 개념을 객관화하기에 유용한 연구방법인 Q 방법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를 Q 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한 권미형, 권영은[16]의 연구 결과 업무 지향적 스트레스형, 현실 직시적 갈등형, 전문직 간호지향형의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실습 전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를 연구한 김윤정[12]의 연구에서는 나이팅게일 사상 중시형, 환자 중시형, 자기개발 중시형이 도출된바 있다. 그러나 Q 요인분석으로 도출된 각각의 요인에서 상위문항과 하위문항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서 해석하게 되면 그 속성이 중간으로 통합되어 오히려 의미가 모호해질 수 있다[17]. 이렇게 상위문항과 하위문항을 나누어 해석했을 때 의미가 훨씬 풍부해지며, Q 분류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하위 유형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18]. 이렇게 도출된 간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개선의 필요성이 있으며,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에게 좋은 간호이미지를 형성하도록 돕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내재화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파악 중요하다[19].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심리적 속성을 뚜렷이 부각하기 위해 상위문항과 하위문항 각각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해

석함으로써 현재의 간호사 이미지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간호사 이미지를 정립하는데 근간이 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진보된 Q 방법론을 적용하여 간호사 이미지를 확인하고 유형별 특성을 근거로 간호대학생의 바람직한 간호사 이미지 형성을 위한 간호교육과 임상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목적 및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Q 방법론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 이미지 유형과 유형별 특성을 확인하여 효율적인 간호교육과 임상교육의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 유형을 확인한다.
- 연구문제 2.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한 인식 유형별 특성을 확인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의 이미지에 대한 유형을 확인하고 그 유형별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Q 방법론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이다.

2.2 표집 방법

2.2.1 Q 모집단 및 Q 표본의 선정

Q 모집단 구성을 위한 자료수집은 서울시 소재 일개 간호대학의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7년 5월 15일부터 2017년 5월 24일까지 수행되었으며, 심층면담과 문헌고찰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먼저 간호대학생을 편의표집하여 개방형 질문서 작성 및 심층면담을 통해 추출된 진술문 94개와 문헌고찰 후 도출된 진술문 64개를 토대로 총 158개의 진술문을 확보하였다. Q 표본의 선정은 위하여 Q 모집단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범주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온 범주는 자질 및 역할, 사회적 인식, 전문성, 독자성, 근무여건이라는 5개 범주였으며 선택된 진술문은 간호학과 교수 2인의 검토와 수정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35개의 Q 표본을 선정하였다.

2.2.2 P 표본의 선정

본 연구에서의 P 표본은 본 연구의 참여에 동의하고, 간호사의 이미지를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간호대학생 총 46명을 편의표집하였다. 대상자의 나이는 21.08 ± 1.81 세이었으며, 모두 여자이고 미혼이었다. 학년은 4학년 32.6%, 1학년 26.1%, 2학년 26.1%, 3학년이 17.4% 순이었으며, 종교는 ‘있다’가 58.7%로 많았다. 입학동기는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 30.4%, ‘주위의 권유로’ 21.7%, ‘남을 도울 수 있어서’ 19.6%, ‘취업이 잘서’ 13.0%, ‘해외진출이 용이해서’ 8.7% 순이었으며, 간호학과의 만족도는 ‘만족’이 80.4%, ‘보통’ 10.9%, ‘불만족’ 8.7% 순이었다<Table 1>.

2.2.3 Q 표본 분류 및 자료 분석 방법

Q 표본의 분포도는 연구 대상자들이 Q 표본으로 선정된 35개의 진술문을 강제 분포시키는 Q 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준비하였다. Q 분류의 절차는 먼저 Q 표본을 읽고 긍정, 중립, 부정으로 분류한 후, 긍정진술문 중에서 가장 긍정하는 것을 차례로 골라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진술문을 분류하도록 진행하여 중립부분에서 마무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Q 표본 분포도에서 가장 부정하는 경우를 1점으로 시작하여 가장 긍정하는 경우에 11점을 부여하여 점수화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PC-QUANL Program을 이용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수를 결정하기 위해 유형의 분류는 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요인 수를 다양하게 입력하여 산출된 결과와 총 설명 변량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유형이라고 판단된 것을 선택하였다.

2.2.4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S 여자간호대학교 연구윤리 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 SWCN-201611-HR-001-04)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연구의 목적과 연구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익명으로 사용됨을 명시하였으며, 서면동의를 받고 진행하였다. 연구 참여자가 원치 않을 경우에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고, 설문지는 연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actor Weights of P sample

(N=46)

Type	ID	Factor weight	Age	Gender	grade	religion	Reason for admission	Satisfaction with major
Factor 1 (N=32)	44	4.9908	20	Female	3	Y	Can help others	Satisfaction
	21	3.0067	20	Female	2	N	Recommendation of others	Satisfaction
	26	2.7740	19	Female	2	N	Recommendation of others	Satisfaction
	38	2.7397	20	Female	3	Y	Can help others	Satisfaction
	45	2.3615	21	Female	3	Y	Aptitude and Interest	Satisfaction
	3	2.0510	23	Female	4	N	Aptitude and Interest	Satisfaction
	34	2.0454	20	Female	3	Y	Aptitude and Interest	Satisfaction
	30	1.9274	23	Female	1	Y	High employment rate	Satisfaction
	2	1.9069	21	Female	4	N	Recommendation of others	Satisfaction
	33	1.8910	19	Female	1	Y	Aptitude and Interest	Satisfaction
	40	1.8292	18	Female	1	Y	etc	Satisfaction
	35	1.7764	21	Female	3	Y	For overseas employment	Satisfaction
	4	1.6755	21	Female	4	N	Recommendation of others	Satisfaction
	19	1.6589	18	Female	1	Y	Aptitude and Interest	Satisfaction
	16	1.5655	18	Female	1	N	Recommendation of others	Moderate
	31	1.4327	20	Female	1	N	For overseas employment	Satisfaction
	1	1.4229	22	Female	4	N	Aptitude and Interest	Satisfaction
	42	1.3744	21	Female	3	Y	Can help others	Satisfaction
	13	1.3408	22	Female	4	Y	Can help others	Dissatisfaction
	41	1.2970	21	Female	3	Y	For overseas employment	Satisfaction
	9	1.2581	24	Female	4	N	Aptitude and Interest	Satisfaction
	43	1.1959	20	Female	1	Y	Aptitude and Interest	Satisfaction
	20	1.1370	19	Female	3	Y	Can help others	Satisfaction
	36	1.0535	21	Female	3	Y	Can help others	Satisfaction
	28	1.0524	22	Female	3	Y	For overseas employment	Satisfaction
	37	1.0383	20	Female	1	N	Aptitude and Interest	Satisfaction
	32	1.0258	20	Female	1	N	Recommendation of others	Dissatisfaction
14	0.9854	22	Female	4	Y	Aptitude and Interest	Satisfaction	
10	0.9848	22	Female	4	N	High employment rate	Satisfaction	
17	0.9223	19	Female	2	Y	Can help others	Moderate	
23	0.9133	23	Female	2	Y	Can help others	Satisfaction	
27	0.9073	21	Female	4	Y	High employment rate	Satisfaction	
Factor 2 (N=14)	8	2.9948	22	Female	4	N	Recommendation of others	Satisfaction
	24	2.6275	21	Female	2	N	Aptitude and Interest	Satisfaction
	29	2.1418	22	Female	3	Y	Recommendation of others	Satisfaction
	39	2.1034	21	Female	3	Y	Aptitude and Interest	Satisfaction
	7	1.8787	22	Female	4	Y	High employment rate	Dissatisfaction
	25	1.7084	20	Female	2	Y	Can help others	Satisfaction
	11	1.6813	23	Female	4	Y	Aptitude and Interest	Satisfaction
	5	1.5509	22	Female	4	N	Recommendation of others	Moderate
	15	1.3493	19	Female	1	Y	Recommendation of others	Satisfaction
	18	1.3302	23	Female	2	N	High employment rate	Satisfaction
	22	1.3173	27	Female	2	N	Aptitude and Interest	Satisfaction
	46	1.2963	18	Female	1	Y	etc	Satisfaction
	12	1.2236	22	Female	4	N	etc	Satisfaction

3. 연구 결과

3.1 Q 유형의 구조

총 4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Q 소팅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QUANL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요인 구분은 QUANL 프로그램을 통해 요인이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산의 정도를 나타내는 아이겐 값(eigenvalue) 1.00 이상을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인식은 크게 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으며 총 2개의 요인이 전체 변량의 78.6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Eigenvalue of each factor and percentage of variance

	factor 1	factor 2
eigenvalues	34.65	1.52
variance(%)	75.33	3.31
cumulative(%)	75.33	78.64
N(%)	32(69.6)	14(30.4)

3.2 요인 및 유형의 해석

2개의 요인으로 추출된 상위 대표 진술문과 하위 대표 상위유형(직무소진 염려형, 전문직 자부심형)과 하위 유형(처우 불만족형, 조직문화 불만족형)의 총 4개의 유

형으로 해석되었다. 진술문을 바탕으로 떠오르는 이미지에 대해 브레인 스토밍 작업을 통해 간호사로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를 해석하여 각 유형의 이름을 명명하였다. 추출된 2개의 요인은 요인별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인식의 두 방향성은 ‘업무 강도가 높은 직업’과 ‘고도의 지적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으로 나타났다. ‘업무 강도가 높은 직업’은 사명감을 가지고 강한 전사같이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는 이미지이며, ‘고도의 지적수준을 요구하는 직업’은 간호사에 대해 전통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희생정신과 봉사와는 대비되는 냉철한 이성을 겸비한 이미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 요인의 상·하위 구조는 다음과 같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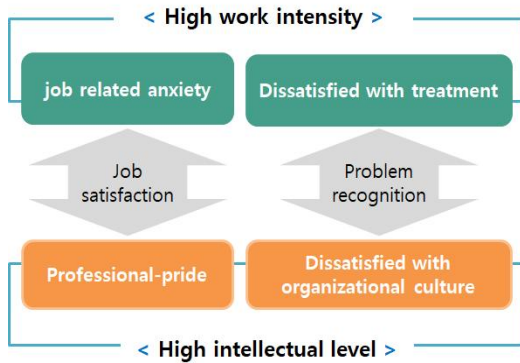


Fig. 1. Recognition structures for nurse image

3.2.1 1요인의 상위 유형 : 직무소진 염려형

1요인의 상위 유형의 학생은 간호사에 대해 사명감을

가지고(6), 헌신적으로 일하며(2), 탁월한 업무능력이 중요시되는(16) 전문직(20)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간호사는 늘 피곤에 지쳐 있어서 힘들고 측은하게 느끼며(34), 환자에게 신경써야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26)이라고 느낌으로써 본인이 미래에 간호사가 되었을 때 염려하는 정서가 내재되어 있어 ‘직무소진 염려형’으로 명명하였다<Table 3>.

3.2.2 1요인의 하위 유형 : 전문직 자부심형

1요인의 하위 유형의 학생은 간호사에 대해 유망한 직업으로(13), 시간적·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33),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7)으로 자랑스럽다고(17) 생각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간호사에 대해 자부심이 있고 긍정적인 정서가 내재되어 있다. 또한, 냉철하며(9), 끊임없이 공부하며(19), 바빠서 환자의 감정까지 헤아려 주지 못한다고(25) 함으로써 돌봄의 요소보다는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업무를 지향하며 간호사를 자랑스러워하는 직업적 태도를 엿볼 수 있어 ‘전문직 자부심형’으로 명명하였다<Table 3>.

3.2.3 2요인의 상위 유형 : 처우 불만족형

2요인의 상위 유형의 학생은 간호사에 대해 상냥하고(4), 사명감을 갖고(6), 강한 전사같이 적극적이고(12), 헌신적(2)으로 일하는 전문직(20)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업무강도가 높고(32), 힘든 업무 환경에 비해 처우가 낮다(30)고 인식하고 있어 ‘처우 불만족형’이라고 명명하였다<Table 4>.

Table 3. Representative items (Factor 1)

Type	Q Statement	Z-score	M±SD
job related anxiety	34. The nurse is tired of being tired all the time, so it feels hard and it feels like it.	1.62	6.85±2.01
	20.The nurse has a professionally strong power and contributes greatly to society.	1.51	6.52±2.32
	2. Nurses work contentedly in pursuit of humanity.	1.49	7.30±2.05
	26. nurse is a stressful job because she has many parts to care for her patients.	1.49	7.27±1.74
	8. Nurses are lifelong jobs where employment is stable.	1.42	5.91±1.77
	24. The distinction between nurses and Nurse Assistant is unclear and confused.	1.23	5.15±2.35
	6. The nurse treats the patient sincerely with a sense of duty.	1.14	6.88±2.04
	16. nurse is not a spirit of kindness or sacrifice, but excellent work ability is important.	1.05	5.46±2.25
cold and professional	13. Nurses have bright prospects, competitive, and promising jobs.	-0.96	3.36±1.81
	9. nurse has a cold, cool image.	-0.96	3.85±1.77
	33. Nurses have time and money to spare, so they can enjoy a variety of leisure activities.	-0.96	4.42±2.40
	17. I am proud to be a nursing student when I see the nurses performing their jobs	-0.96	3.91±2.17
	7. Nurses have a high social status.	-0.96	5.06±1.66
	25. The nurse is busy with work,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patient's emotions cycle.	-0.95	4.67±2.07
	19. When nurses are constantly working and studying, they feel like a worker ants.	-0.94	3.42±1.72

Table 4. Representative items (Factor 2)

Type	Q Statement	Z-score	M±SD
Complaint of treatment	30. Nurses are not treated as much as they are in poor working conditions, such as at night.	1.77	7.85±2.58
	6.The nurse treats the patient sincerely with a sense of duty	1.46	7.61±1.50
	4. The nurse is a good conduct kind..	1.46	6.31±1.44
	2. Nurses work contentedly in pursuit of humanity.	1.45	6.65±1.12
	8. Nurses are lifelong jobs where employment is stable.	1.31	7.38±2.53
	12 .Nurses work like strong warriors.	1.27	6.58±1.61
	32. Nurses have a hard time working long hours because of their high intensity of work.	1.12	6.39±2.18
	20. The nurse is making a great contribution to society by using her professional achievements as a power.	1.12	5.85±0.99
Profession - Unacceptable	24.The distinction between nurses and Nurse Assistant is unclear and confused.	1.12	5.79±1.69
	23. The nurses and the nurses' Association seem weak.	-0.95	4.92±1.89
	7. Nurses have a high social status.	-0.95	3.58±0.92
	3. Nurses are highly intelligent and educated.	-0.95	3.14±1.57
	1. Nurses understand and support patients ' positions.	-0.95	4.24±2.02
	29. It is hard for nurses to get married because of irregular living.	-0.95	4.76±1.78
	27.Burning culture(Taeoom) is a problem that occurs in any organization.	-0.95	5.00±1.68
	5. Nurses are mechanical and unfriendly.	-0.93	3.53±1.61
	21. Nurses are limited in their development because they perform doctors' supplementary work.	-0.93	3.15±1.98

3.2.4 2요인의 하위 유형 : 조직문화 불만족형

2요인의 상위 유형의 학생은 간호사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환자를 이해하고 지지하며(1), 지적수준(3)과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으로(7) 생각한다. 하지만 태움 문화를 가지고 있고(27), 간호사 단체의 힘은 약하며(23), 교대 근무의 환경으로 인해 가정생활의 유지가 어렵고(29), 간호사는 의사의 보조적 업무를 담당하여 간호직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다(21)는 것은 간호사 직업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조직문화 불만족형’이라고 명명하였다<Table 4>.

4. 논의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집단에 따라 다양하며 간호학 및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변화되고 있는 현실 점에서 간호대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간호사의 이미지는 예비간호사로서 간호대학생이 간호전문직관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과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바람직한 간호사 이미지를 정립해나가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 4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I-1유형은 ‘직무소진 염려형’, I-2유형은 ‘전문직 자부심형’, II-1

유형은 ‘처우 불만족형’, II-2유형은 ‘조직문화 불만족’이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직무소진 염려형’인 I-1유형은 간호사는 전문직업적 과위를 발휘해 헌신적으로 일하며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늘 피곤에 지쳐 있어서 힘들어 보이고 측은하게 느껴지며, 환자에게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라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가 전문지식과 숙련된 기술을 갖추고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 간호를 수행하는 전문적 이미지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권미형과 권영은 [16]의 연구와 직업적 소명의식을 가진다고 김윤경[12]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전문성을 가지고 간호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업무 등으로 인해 늘 피곤에 지쳐있는 모습은 간호사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임상현장에 있는 간호사들의 동기부여와 사기 증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간호조직문화를 조사한 연구결과 병원과 간호사간의 관계유대가 높을수록 간호사의 직무만족도가 높게 나왔던 결과[20]를 고려하여 간호관리자는 소속 조직의 관심을 갖고 고객 지향적 행동을 강요하기 보다는 내부 조직 구성원 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구축[21]하여 조직의 공통된 성과 달성을 유도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I-2유형은 ‘전문직 자부심형’으로 ‘직무소진 염려형’과 다르게 간호사 직업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전

문직으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으며 간호대학생임을 자랑스럽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사의 전망은 밝으며, 경쟁력 있는 유망한 직업이다’는 문항은 간호사가 전문적 기술과 지식을 가지며 직업에 대한 긍지를 소유하는 전문적 이미지를 높게 인식한다는 연구 결과[22]와 일치하였다. 한편, 간호사는 일이 바빠서 환자의 감정까지 헤아려주기가 어렵다고 함으로써 기존의 백의의 천사 또는 헌신적인 이미지와는 대비되는 이미지로 나타난 결과는 권미형과 권영은[14]의 연구를 뒷받침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대부분은 병원으로 취업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다수의 환자를 접하는 병동에 근무부서를 배치 받게 된다. 이 유형들의 단점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형성 부족이나 인간에 대한 무관심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직업 인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신의 인성에 맞는 직업 선택을 도울 수 있는 학생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II-1유형은 ‘처우 불만족형’으로 간호사는 강인한 전사같이 적극적으로 일하지만 밤 근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대우를 못 받으며, 업무강도가 높아서 오랜 기간 일하기 힘든 직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간호학과의 2015년 취업률은 84.4%로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여건 등을 호소하며 이직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간호사의 평균 근무연수는 5.4년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신규간호사의 사직률은 31.2%로 높다[23].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간호대학생들은 취업도 하기 전에 ‘내가 과연 오래 근무할 수 있을까’하고 생각하며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므로,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반적인 근무환경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References

- [1] E. J. Yeun, S. Y. Han, and I.J. Lee, "Subjectivity on Nursing Images among High School Students: An Application of Q-methodology", *Journal of KSSSS*, Vol.21, pp. 179-194, 2010.
- [2] Kohler, P., and R. N. Clarke. "Marketing for Health Care Organization.", 1987.
- [3] K. S. Park, "Examining the Structural Model of Perceived Image of the Coach, Athletic Identity and Exercise Volition among Collegiate Athletes", Vol.16, No.1, pp. 49-59, 2014.
- [4] J. E. Kim, H. J. Jung, H. N. Kim, S. Y. Son, S. K. An, S. B. Kim, J. E. Son, E. G. Lee, H. W. Lee, M. K. Jung, and K. H. Jeon, "The Image of Nurses and Their Clinical Role Portrayed in Korean Medical TV Dramas in Recent 5 Years, *The Seoul Journal Of Nursing*, Vol.10, No.2, pp. 120-132, 2013.
- [5] S. A. Park, H. J. Kwon, and H. J. Kim, "The Portrayal of Nurses and Physicians in Hospital",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Vol.16, No.2, PP. 33-42, 2010.
- [6] Parker, Judith, and Julia Hallam. "From angels to handmaidens: changing constructions of nursing's public image in post war Britain." *Nursing Inquiry*, Vol.5, No.1, pp. 32-42, 1998.
- [7] Lusk, Brigid. "Pretty and powerless: Nurses in advertisements, 1930 -1950." *Research in Nursing &Health*, Vol. 23, No. 3, pp. 229-236, 2000.
- [8] H. S. Jeong and Y. S. Yoo, "Image of Nurses a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d Image Determina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Vol.24, No.1, pp. 29-38, 2010.
- [9] E. H. Ha and K. S. Hyun, "Nurses Self-Image Perceived by Clinical Nurses: An Application of Q-Methodology",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26, N0.1, pp. 117-128, 2014.
- [10] H. J. Lee, "Image of Nurse Perceived by Nursing Student Before and After Their First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East-West Nursing Research*, Vol.20, No.2, pp. 129-135, 2014.
- [11] I. S. Yang,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determinants the im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1998.
- [12] Y. J. Kim, "Study on the Subjectivity about Nursing Students Image of Professional Nurse before Clinical Practic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5, pp. 224-234, 2014.
- [13] S. J. Park and B. J. Park, "Content analysis of nurse image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6, pp. 3696-3705, 2014.
- [14] J. A. Seong, E. Y. Yeom and Y. S. Do, "Image of nurses and nursing professional values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11, pp. 798-809, 2014.
- [15] S. H. Lee and J. A. Kim, "Image of nurse and it's determinants among nursing students and non-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2, No.1, pp. 52-62, 2006.
- [16] M. H. Kwon and Y. E. Kwon, "A Q-methodology Study on the Nurse's Image of Nursing Students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SSSS*, VOL,29, pp. 29-4, 2014.
- [17] S. M. Whang and Y. S. Choi, " Psychological inquiry of Human Subjectivity : Studies of Human Mind in Object Manner", *Journal of KSSSS*, Vol.21, pp. 5-18, 2010.
- [18] S. M. Whang, R. H. Lee and M. O. Lee, "Q methodology & Identification of Mind",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Conference), pp. 218-218, 2015.
- [19] D. L. Han, "Images of Good Nurses as Perceived by

Nursing College Students : A Q-Methodological Approach”,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4, No.1, pp. 61-71, 2017.

- [20] Y. J. Lee, S. H. Kim and T. W. Lee, “Effects of job characteristics, organizational culture o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in public institution nurse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Vol. 21, No.4. pp. 354-365, 2015.
- [21] M. J. Lee, J. S. Han and Y. M. Jang, “Convergence Study of The Effects of Nurses' Perceived Nursing Organization Culture and on Their Customer Orient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3, No.11, pp. 303-311, 2015.
- [22] J. Choi and S. Hana, “The relationship among image of nurses, self esteem and professional socializa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5, No.1, pp. 54-63, 2009.
- [23] Korean Hospital Nurse Association, “Study the Real State of the Hospital Nurses Arrangement Situation”, *Journal of Korean Hospital Nurse Association*. Seoul, 2016.
- [24] M. K. Joo and G. Y. Shin, “Nursing image and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male and female nursing students in colleg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8, No.3, pp. 510-521, 2012.
- [25] S. R. Shin, “Analysis of Studies on Nursing Image Performed in Korea from 2003 to 2014”,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21, No.4, pp. 435-446, 2015.

이혜진(Lee Hye-Jin)

[정회원]



- 2011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7년 2월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증진

이주영(Joo Young Lee)

[정회원]



- 2002년 2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석사)
- 2006년 2월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간호학박사)
- 2007년 3월 ~ 현재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노인간호, 간호정책, 질관리

오승은(Seung Eun Oh)

[정회원]



- 2006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2월 :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조교수

<관심분야>

리더십, 원가관리, 전문간호사